

음악은 '휘모리' 인생은 '진양조'

컬처 & 피플

가야금 명인 황병기



황병기 선생이 서울 성북구 북아현동 자택에서 60년 가야금 인생과 예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울=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단도직입(單刀直入). 촌철살인(寸鐵殺人). 가야금 명인 황병기(78) 선생과 만났을 때 이렇게 요약해야 맞다. 서울 성북구 북아현동 언덕에 있는 집에서 만난 황 선생은 깨끗했다. 그에게 던진 커브성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같이 묵직한 돌직구로 돌아왔다. 질문과 대답이 휘모리 장단처럼 빠르게 오갔다. 재차 물을 것도 없었다. 말, 겨울과 틈을 주지 않고 단호해서다. 가야금과 60년 동고동락해온 그의 예술세계는 바위처럼 심지어 굳고 단단했다.

예컨대 기자는 “가야금을 타면서 악기를 개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셨나요?”라고 에둘러 물었다. “테니스 선수가 네트를 낮추자고 할 필요 없잖아요. 경기장을 늘리자고 하면 더 우습죠.”

황병기 명인은 국내 최초의 가야금 창작곡 ‘술’을 비롯해 ‘미궁’ 등 술한 음반을 발표하면서 가야금 창작의 역사가 됐다. 1964년 국립국악원의 첫 해외 공연이었던 일본에서 가야금 독주자로 참가했고 1986년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가야금 독주회를 열었다.

황병기 명인이 주로 창작·연주하는 가야금 곡은 산조(散調)다. 궁중 의례 때 연주되는 정악(正樂)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산조는 민속 가악곡 가운데 음악적 짜임새와 완성도가 가장 높은 음악이다. 오랜 손으로 현을 뜯거나 튕기는 숙련된 연주 기교와 원순으로 줄을 강하게 떨거나, 흘러 내리고, 밀어 올리는 등의 농현(弄絃)을 통해 특유의 생동감을 표현한다.

황병기 선생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인이지만, 결코 대중의 니즈(Needs)에 화답하지는

가야금과 동거동락 60년 서울대 다닐 때도 놓지 않아 생수 같은 순수음악 좋아

않는다. 그가 입버릇 처럼 말하는 ‘생수론’에는 비타협적인 예술세계가 담겨 있다. 그의 지론은 이렇다. 대중들이 ‘시름 달음’한 콜라 같은 청량음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이다. 진정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는 ‘생수’라는 것이다.

“아주 비대중적인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대중의 무의식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깊은 산 속 샘물 같이 순수한 음악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대중적 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기호에 맞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악계에서도 동·서음악의 융합을 토대로 한 퓨전이 대세다. 황병기 명인의 생각은 어떤까. 칼로 무 자르듯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저는 퓨전음식도 안먹습니다. 적당히 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재미가 없지요. 알아서 듣는 맛이 없습니다.”

황병기 선생이 지난 1974년 작곡한 ‘침향무(沈香舞)’는 서역과 향토적인 것을 아우른 깊은 법열(法悅)의 경지를 보여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 국악관현악단은 해외 연주에서 침향무를 반드시 레퍼토리에 포함시킨다.

“침향(沈香)은 인도가 원산지인 향기 이름으로 동양에서는 고귀하고 비싼 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침향이 서린 속에서 추는 춤이 침향무입니다. 저는 창작 당시 우리 전통 음악은 100% 조선조 음악이라고 봤죠. 조선조 음악은 유교영향을 받은 놀린 음악입니다. 이를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

는 창작의도가 깃들어 있는 곡이 침향무입니다. 아류가 아니라 원류로 돌아가면서 조선조를 탈피한 것입니다.”

황병기 선생은 중학교 3학년 때(1951년) 가야금에 반했다고 한다. 6·25 전쟁을 피해 부산의 천막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 우연히 학교 근처의 고전무용 연구소에서 가야금을 가르치던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부딪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매혹됐다”고 회상했다.

황 선생은 중·고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다닐 때도 가야금을 놓지 않았다. 당대 명인이었던 김영운, 김윤덕, 심상건, 김영제 선생에게 정악과 산조를 배웠다. 국립국악원에서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울 때 부인인 소설가 한말숙씨도 만났다.

황병기 선생은 지난 2006년부터 11년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겸임했다. 3년만 하고 내려오려 했는데, 단원들의 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6년간 맡게됐다. 그는 대학에서 재직하는 동안 수백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초기에 가르쳤던 제자가 정년퇴임한 사례도 있다.

“연주는 가르칠 수 있어도 창작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시인 김소월 선생,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누구한테 배워서 창작했나요. 창작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연주하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또 다른 창작을 기대한다. 그도 창작에 대한 집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렵다”고 말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없는, 온전한 창작을 꿈꾸고 있어서다. 그는 “새로운 창작곡이 언제 나올지, 아니면 못 만들어낼 지 알 수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그의 곁에 가야금이 있는 한 새로운 창작은 반드시 세상에 나올 것 같다.

/서울=윤영기기자 penfoot@



박진현의 문화카데

“그 아이가 천재일지도 모르잖니. 우리처럼 평생을 탄광촌에서 보내게 할 순 없어.”

10여 년 전 국내에서 상영돼 큰 화제를 모았던 영국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0년 작)의 대사 일부이다. 이 영화를 본 독자라면 막내 아들의 발레 오디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업투쟁에서 빠진 아버지와 이를 반대하는 첫째 아들이 나와 대화를 기억할 것이다. 기자 역시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배신한 채 탄광으로 걸어 들어가는 광부 아버지의 슬픈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 탄광촌

후 아버지는 누구보다 빌리의 열성적인 후원자가 된다. 발레만이 빌리가 탄광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고 믿는 아버지는 아들을 런던 왕립발레스쿨에 보내기 위해 돈을 모은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로얄 발레단 무용수가 된 빌리가 무대위로 뛰어 오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다.

지난 5월 말, 기자가 찾은 런던 웨스트엔드의 빅토리아 펠리스 극장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관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2007년부터 동명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공연하고 있는 극장은 지은지 100년이 넘어 남

‘빌리 엘리어트’ in 광주

출신의 로얄 발레단 무용수 필립 말스텐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다. 뉴캐슬의 작은 탄광마을을 배경으로 발레천재인 소년과 가족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그렸다. 가난한 탄광촌의 11살 소년 빌리는 탄광 파업시위에 열성인 아버지와 형, 그리고 차매증세가 있는 할머니와 살고 있다. 권투연습을 위해 체육관을 찾은 빌리는 우연히 발레 수업에 참가하게 되고 자신의 발이 손보다 훨씬 능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빌리는 발레 선생님이 윌킨슨 부인의 격려로 권투를 그만두고 발레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아버지와 형의 단호한 반대로 빌리는 발레수업을 그만둔다.

그러나 발레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빌리는 성장절 저녁, 텅빈 체육관에서 격정적인 춤을 춘다. 이때 빌리를 찾으러 체육관에 들른 아버지는 아들의 춤을 목격하게 되고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날 이

고 소박했지만 1550개의 좌석은 빈자리 하나 없었다. 지난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펼쳐지는 풍경이다. 런던을 찾는 외국 관광객 1600만 명(2013년 기준)의 20~30%가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관람한다고 하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빌리 엘리어트’가 웨스트 엔드의 다른 공연들에 비해 유독 인기가 많은 건 ‘영국적, 영국에 의한 브리티시 뮤지컬’이기 때문이다. ‘갯초’나 ‘맘미미아’와 같은 영국산 뮤지컬도 많지만 영국을 배경으로, 그것도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다룬 건 ‘빌리 엘리어트’가 유일하다. 영국 북부 지역의 강한 사투리를 그대로 살려 낸 대사는 영국인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다.

문화로 먹고 사는 런던의 힘은 탄광촌을 글로벌 콘텐츠로 키워낸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 아시아의 문화강자를 꿈꾸는 지금, ‘광주산(產) 빌리 엘리어트’들이 필요한 이유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문화재단 ‘가족이카펠라음악단’ 단원 모집

다문화·일반 가족들이 함께 세대와 국적을 뛰어넘어 음악으로 소통을 이루는 ‘가족이카펠라음악단’이 운영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까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가족이카펠라음악단’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 전체 정원은 30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공동체 아우름이 기획·운영하고 북구 다

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조한다. 오는 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교육을 진행한다. ‘가족이카펠라음악단’은 아시아 6개국 이 참여하는 ‘제4회 보컬아시아 아가펠라페스티벌’과 ‘레인보우 페스티벌’, ‘가족음악캠프’ 등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문의 070-4152-5428, 062-670-7917~8. /이보람기자 boram@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델/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상업용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델,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대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디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판매나주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매 3억
- 나주 시청앞 택지지구 4차선 도로변 대지 778㎡ 매9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유 재판

급히 찾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하실분들
출찰이 대기중이네요

지역이,금액이,종류가
맞지않아서요



부동산이라면
[무엇이든][지역 상관없이][금액상관없이]
바로 전화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싹뻗습니다



즐거운부동산세상

부동산뉴스,재테크,방식,건강정보
전국 새 변태이상 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급매물도있어요

- 1)금남로 오피스텔 39㎡ 6세대 땡처리
- 2)롯데원 원룸빌딩 50%급처분
- 3)대형 콜라텍 가져드립니다
- 4)화순,담양 전담,임야 판매물 많아요
- 5)대포코너 대단지입구 싹뻗도있어요

동부소방서사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오

매월 월세
300 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다와옥션

주책 고흥군 금산면
아저리

대지 406㎡
건물 99.24㎡
최저가 2043만원
해수욕장 200m거리

봉선동 신축아파트
부근 코너

대지 236㎡
건물 584㎡
상권,입지조건
유동인구 최상
최저가 4억5300만원

5층원룸 동구 계림동

대지 205㎡
건물 2652㎡
감정가
4억2382만원
최저가
2억9668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